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과 핀테크*

(Innovation and FinTechs in a Post-Pandemic World)

* 2020년 12월 WAIFC(World Alli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가 발표한 보고서의 발췌 번역임

< 요약 >

- 국제금융센터 세계연합(World Alli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WAIFC)은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가 세계 경제, 특히 혁신 분야와 핀테크(FinTech)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 코로나 사태는 기존의 사업 수행방식을 크게 변화시켰으나, 핀테크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기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었음

- 코로나 사태는 지급(payments)과 레그 테크(RegTech) 등을 발전시키고 핀테크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음

- 핀테크와 신기술은 세계 경제를 다시 회복세로 돌려놓고 미래의 위기로부터 복원력 있게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I. 세계 금융산업의 혁신 현황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시장이 세분화되며,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개편되는 가운데 금융혁신과 핀테크가 출현하게 되었음
2.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변화를 초래하였음
3. 그 결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벤처금융과 크라우드펀딩의 견인 하에 2010년 80억 美 달러에서 2019년 1,100억 美 달러로 13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음
4. 세계 주요 금융센터는 핀테크의 성장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함
 - 금융회사의 조직 목표와 연계한 명확한 핀테크 전략 수립
 -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현재 자산과 역량을 고려하고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5. 현재 금융회사들은 핀테크를 다음과 같이 기존 체계의 보호 수단, 또는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
 - (보호전략) 사내 핀테크 솔루션 자체 개발
 - (보호+성장 전략) 타사 핀테크 솔루션 활용
 - (성장 전략) 핀테크 신생기업과의 사업 제휴 또는 동 기업의 인수
6. 금융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핀테크의 발전과 이용 증대가 금융산업에 위험요인이 아니라 사업 창출에 기회가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특히 핀테크를 은행의 리스크 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 핀테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주된 요인은 비용 절감과 수익성 증대임

II. 코로나의 영향과 핀테크의 기회

1. 코로나 사태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줄어들면서 국내 및 국외 금융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
2. 반면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됨. 재택근무 솔루션, 온라인 협업 도구, 클라우드 서비스 등 핀테크 기술의 채택이 뉴 노멀(New Normal)로 부상하는 등 핀테크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였음
3.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혁신 관련 단기 협업프로젝트가 연기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협업이 늘어났음
 - 프랑스: 사기 예방 등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대응하지 못한 수요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해결함(리스크 예방, 현금 관리, 결제보안 등)
 - 카자흐스탄: 코로나 사태는 자국 내 디지털 बैं킹의 낙후성을 드러내었으나, 소매 거래 중 상당 규모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등 디지털 बैं킹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작용함
4. 핀테크 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워진 시장환경에 큰 수혜를 입고 있으나, 앞으로는 급증하는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수요 충족에 그치지 말고 자체 IT 인프라 확장을 통해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해야 함
5. 소비심리가 위축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 사태가 핀테크 기업의 미래에 미치는 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저위험 제품: B2B(Business-to-Business) 사업모델
 - 고위험 제품: 해외결제, 무담보/담보 소비자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 고위험 대출 상품
 - 유망 제품: 레그 테크(RegTech,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의 준법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시키는 기술)

(핀테크의 단기 추세)

1. 사회적 거리두기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신생기업과의 혁신 프로젝트 협업이 지연되었음
2.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핀테크 관련 투자는 검증된 사업모델을 갖춘 업체들에 국한되었으며, 파이낸싱(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등)에 주력하는 핀테크 업체는 정부가 제공하는 제로금리 대출상품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3. 일부 핀테크 기업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비용절감의 이유로 영업 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한 사례도 있었음
4. 코로나 사태로 특정 고객사(관광, 요식, 컨벤션, 오락)를 대상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음
5.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단기 및 중기 협업 프로젝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핀테크 업체는 수익창출력이 부족한 혁신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였음

(핀테크의 장기 추세)

1. 현재 대두되는 장기 추세는 전반적인 디지털화이며, AI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코로나 사태의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2. 전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기업간(B2B) 핀테크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졌음
3. 코로나 사태 이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디지털 은행은 장기적으로 현금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모델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
4. 전자상거래와 비대면 결제로 온라인 결제규모가 급증하였으며,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 서비스의 혁신도 촉진되었음
5. 코로나 사태 하에서 지속적인 업무수행과 재택근무자 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이버보안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코로나 사태 이후 대출을 공여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업무 간편화를 추진함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며, 전통적인 물리적 지점(physical branches)은 폐쇄되거나 이용 빈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7. 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투자 자문 전문가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서비스가 혼합된 자문 서비스가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로봇(Robot)과 자문 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투자자가 입력한 투자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자산 운용을 관리하는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자동화 서비스를 의미

III.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핀테크 부문

1. 결제·송금, 전자상거래

■ 코로나 사태는 기존의 현장(Point of Sales: POS) 신용카드 결제에서 현금이 필요 없는 비대면 결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킴

■ 이에 따라 디지털 인증 시스템 등 신규 결제 기술 부문에 투자가 필요해짐

○ 홍콩: 홍콩통화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이 제공하는 신속결제시스템(Faster Payment System, FPS)을 이용하여 보험료, 상수도 요금 등을 지불할 수 있으며, 매일 40만 건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음

○ 카타르: 카타르 핀테크허브(Qatar FinTech Hub) 내에 핀테크 교육 및 인큐베이터 프로그램(accelerator and incubator program)을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결제사업을 공식적으로 장려하여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외 우수사례 > 카타르 CWallet

■ CWallet: 카타르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은행 모바일 결제앱. 해외 동포, 이주민, 국내 근로자,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급여, 결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 특히,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re)에 CWallet International을 창설하여 소액금융과 대출시장에 적극 진출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재간접 판매(white labelling)하고 있음

■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카타르 정부의 친기업 환경 정책에 힘입어 CWallet의 평가액은 현재 2백만 美 달러를 상회하며, 엔젤 투자자로부터 20만 美 달러 이상의 초기사업자금(pre-seed round)을 확보함

■ 본 앱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 우수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관계자와 방문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임. 현재까지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가 간 지급 서비스와 wallet-to-wallet 거래체계를 구축하는 등 거대한 잠재시장으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높음

2. 디지털 뱅킹

-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디지털 은행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운영비 절감과 사용자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개선이 최우선순위로 부상함
- 기존 신용 공여기관의 다각화된 수입원에 비해 디지털/모바일 은행은 본질적으로 현금 소모적인 사업 모델에 기반하므로, 수익성 개선에 한계에 봉착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함
-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핀테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출이 전 세계적으로 제공됨. 급증하는 대출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은행들은 AI 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동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3. 레그 테크(RegTech)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레그 테크를 통해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노력이 이뤄짐
-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시 정부가 개입하면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음. 이에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개선과 규제 업무의 간소화 등으로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함

< 해외 우수사례 > Governance.com

-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에 특화된 솔루션 제공업체로, 코로나 사태로 금융서비스 업계가 직면한 디지털 전환 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함
 - 준법업무의 디지털화: 모든 업무절차를 시각화하고, 업무흐름을 자동화하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 원격 회의: 이사회 등 준법업무 특성상 필요한 주요 대면회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회의시스템 Meeting Portal 제공
 - 디지털 업무 연속성과 재택근무: 데이터 활용, 용이한 협업, 핵심업무에 인력 투입으로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4.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 코로나 사태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켰으며, 2017년부터 2018년 초의 급등을 상회하는 호황기를 보이고 있음. 이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개인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려는 동기에 주로 기인
- 저금리와 불안정한 시장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의 수요와 이용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온라인 암호화폐 분석기관인 Tokenist의 조사(2020.6월 발표) 결과, 응답자 중 45%가 전통적인 안전 투자처(예: 주식, 부동산,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조사 결과도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또는 규제당국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일본 금융청은 암호 화폐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24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음
- 독일 핀테크 전문가와 투자자로 구성된 FinTechRat 위원회는 독일 재무부 및 법무부와 함께 전자증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면서 가상자산 규제안(Markets in Crypto-Asset Regulation, MiCAR)을 발의하였음
* 기존 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를 의미
- 자산의 토큰화와 현금흐름은 시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금융 업계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V. 핀테크 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

1. 핀테크 기업은 코로나 사태로 확산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자본금을 확대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비용절감 조치를 강화하였음
2.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 사태 이후 투자여건은 양호한 편임
3. 각국 정부는 경제환경 변화에 취약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조치를 시행함
 - 룩셈부르크: GDP의 14%에 해당하는 88억 유로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여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전 기업에 단축근무제를 장려

■ 부산: 중앙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디지털 인프라(5G, AI, 빅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함

■ 홍콩: 재택근무를 위한 IT환경 구축 지원금 프로그램(Distance Business Programme), 기업체를 위한 고용안정자금(Employment Support Scheme), 홍콩사이언스파크(Hong Kong Science Park)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 정책 등을 시행

■ 아부다비: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10억 美 달러 규모의 투자금 중 기술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2.5억 美 달러를 책정

4. 코로나 사태의 여파에 대응하고 금융 디지털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선제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안성과 규제에 민감한 업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원활한 디지털화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가 시행되어야 함

■ 특히, 비대면 업무에 필수적인 전자 계약서, 서명, 인증 기술 관련 법적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5. 최우선시해야 할 사이버 보안

■ 코로나 사태로 전 분야에 걸쳐 모든 업무절차가 신속히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전되고 재택근무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이 급증함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방관련 기관 등 주요기관의 보안망이 공격 받은 바 있음

■ 위험 관리, 보안 강화, 대 고객서비스 개선,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핀테크 업계의 주된 과제임

V. WAIFC의 정책 권고안

1. 자금조달의 범위 확대

- 정부는 핀테크 기업의 단기 금융 수요(대출보증, 직접대출, 보조금 등)를 파악하여 지원해야 함
-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기존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놓인 핀테크 기업에 대출상품을 제공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2. 디지털 금융 포용을 촉진할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확대에 이어진 금융 포용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코로나 사태로 금융 디지털화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업계 내 소규모 기업의 성장이 더뎠고 디지털 인프라 격차가 확대됨
- 디지털 인프라에 보다 용이한 접근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금융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5G, AI, 사이버 보안,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지원이 필요함

3.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보안을 아우르는 법규 제정

-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법적 제도를 신속히 수립하는 동시에,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 계약, 서명, 인증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전 세계 디지털 인증 솔루션의 개발

- 재택근무와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의 확산으로 보다 중요해진 개인인증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며, 간편 로그인이나 비밀번호가 불필요한 인증 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고객의 참여, 경험, 신뢰를 쌓아야 함

5. 디지털 금융 지식 교육 강화

- 국가별 서베이 플랫폼 개발과 공동 연구를 통해 유의미하며 비교 가능한 금융 지식도 조사를 수행하고 공통된 금융교육목표를 수립해야 함

6. 글로벌 핀테크 파트너십 구축, 지식 이전 체계 연계

- 국가별 금융기관의 목표에 부합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유동자산과 역량을 고려하며,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관리 및 시행계획이 포함된 명확한 핀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이에 국가별 핀테크 생태계는 강력한 업무제휴로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해야 함

7.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전통적 금융기관과 핀테크 간 협력 강화

- 상호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통적 금융기관과 핀테크 간의 협력 증대를 통해 코로나 이후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도모

VI. 결론

1. 코로나 사태는 기존의 사업, 교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전 세계 기업들이 지속적이며 복원력 있는 경기회복세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기존 사업모델에 혁신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2. 코로나의 여파로 핀테크 기업은 투자자 확보의 어려움과 제한된 자본이라는 장벽에 부딪혔으나, 정부 및 초국가 기관의 지원 등에 힘입어 선제적인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음
3. 금융부문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발전한 핀테크 업계의 본질을 고려할 때, 동 업계는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회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핀테크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신속하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4. 디지털 금융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필요함
 - 핀테크 기업과 관련된 법 및 규제 체계의 개선
 - 핀테크 기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생태계 강화
 - 디지털 경제와 혁신 촉진에 필요한 자금 공급 확대
5. 코로나 사태는 WAIFC와 같이 초국가적 기관의 설립 취지인 지식과 모범 사례의 공유 및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6. 기업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오랫동안 존속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혁신(proactive innovation)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집중적·효율적 투자가 중요함

VII. 주요 참고문헌

1. World Alli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Innovation and FinTechs in a Post-Pandemic World, 2020. Retrieved from <https://waifc.finance/resources/>